

## 청소년 비행에 대한 사회계층론적 접근

한 대 동\*

- I. 서론
- II. 청소년 비행에 대한 사회계층론적 접근
- III. 요약 및 결론

### I. 서론

이제까지 청소년의 비행이나 일탈행위에 관한 이론들이 많이 제시되어 왔다. 오늘날 그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청소년 집단의 비행이나 일탈행동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그들은 제각기 나름대로의 공헌을 하고 있다. 한편 이들은 관점이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현상에 대한 설명이 다르기도 하고 대체로 문제를 부분적으로만 파악하거나 설명하는 데 그치는 제한점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예를 들면, 한 청소년이 비행이나 일탈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그것은 가치관의 혼란이 심한 현대사회에서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간의 괴리로 인하여 생기는 아노미 현

상에 불과하다는 이론이 있는가 하면, 한 사회의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자신의 처지에 따라 개인마다 다르게 받아들이는 소위 차별적 사회화의 결과로 보는 입장도 있고, 다른 불량 교우들로부터 영향을 받아 그들의 비행을 배움으로써 생겨나는 것으로 보는 이론도 있고, 또는 주위 사람들(부모, 교사, 친구등)이 거는 기대가 부정적이라든지 실수에 의한 우연한 비행에 대해서 불량 청소년으로 낙인을 찍는 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이론도 있다.

이러한 다양한 이론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것은 필요하기는 하나 해석의 관점에 따라 다른 면을 보여 준다(예, 한준상, 1989; 전정갑 외, 1987). 그러나 대체적인 경향은 사회학의 이론적 패러다임의 구분에 따라서 구조기능론과 갈등론으로 나누고 그 어느 편에 소속시키기가 어려운 이론들은 별도로 구별하는 방식을 취한다. 여기에서는 청소년의 비행이나

\*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일탈에 관한 기존 이론들의 체계적인 분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이론들의 경향을 대체로 살펴보고 그중에서 소위 갈등론이 차지하는 비중과 위치를 검토해 보는 데 초점이 있다.

이제까지의 청소년 비행이나 일탈에 관한 이론이나 연구들은 대체로 다음의 두가지 경향을 나타내었다고 생각된다. 첫째는, 청소년의 비행의 원인을 개인적인 특성이나 사회적 부적응에 두고 개인적인 비행이나 일탈행위가 일어나는 과정을 강조하는 심리학적 관점이 많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비행이나 일탈행위의 책임이 청소년 개인에게 돌려지는 반면에 사회구조와는 별 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다. 둘째로는, 청소년 비행이나 일탈행위를 개인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집단적인 현상으로 보며 그 발생 원인을 개인보다는 사회구조에서 찾으려는 사회학적 관점이나 이론중에서 구조기능론에 치중되어온 경향이 있다. 따라서 소위 갈등론적 관점이나 이론은 상대적으로 취약하였던 것 같다. 구조기능주의적인 관점을 지닌 이론들의 대체적인 경향은 청소년의 비행이나 일탈 현상을 사회 구성원의 합의에 의한 지배적인 질서, 문화, 통제로부터 벗어나는 일탈행위로 규정하고 그러한 일탈행위가 일어나는 과정을 중시하며 청소년 비행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하고자 하는 규범론적 연구문제에 관심을 집중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청소년의 비행이나 일탈행위에 관련된 집단간의 갈등이나 대립에 관심의 초점을 두는 갈등론의 주요 문제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갈등론에 의하면, 사회의 공식적인 가치, 문화, 목표등이 지배 집단의 그것들로서 합당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수 집단이나 피지배 집단의 청소년들은 그러한 사회 문화에 적응하여 살아가기가 어렵게 되고 그 지배 문화로부터 일탈되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청소년의 비행이나 일탈을 사회계층과 관련지어 이해하거나 자본주의 사회의 계층구조가 갖고 있는 필연적인 병폐 현상으로 보는 이론이나 관점이 이제까지는 적었다고 볼 수 있다. 사실은 그러한 갈등론적 이론이나 시각이 적었다기 보다는 그것을 우리의 청소년 문제에 적용하여 이해해 보려는 실천적인 움직임이 학계나 현장에서 부족하였다는 데에 더 큰 문제가 있다. 특히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청소년 연구나 학계에서 그러한 경향은 더 두드러져 보인다.<sup>1)</sup> 그렇게 된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아마도 청소년 문제에 대한 그러한 사회계층론적 접근 또는 넓게는 갈등론적 접근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그러한 부정적인 평가가 과연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내려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별로 없었다고 볼 수 있고 오히려 이데올로기적 매척으로 인하여 그러한 비판적인 이론들의 설명력이 평가절하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상황적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과연 갈등론적 사회계층론이 청소년 문제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공헌할 수 있는지를 나름대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청소년

1) 예를 들어, Everhart(1983)는 그의 연구의 서문에서 그동안 주로 미국에서 행해져온 주요 청소년 하위문화 관련 연구들을 개괄하면서 초기의 연구들은 Coleman 연구(1961)를 위시하여 학교내에 학생들만의 하위문화가 학교의 사회적 구조로서 존재함을 발견하였고 Cusick(1972)에 와서 학교에서의 학생들의 삶의 의미가 이해되기에 이르렀고 Willis(1977)는 그러한 학생들의 학교저항문화가 바깥 사회의 계층구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로서 최근의 가장 발전된 학생문화연구로 평가하고 있다.

비행이나 일탈에 대한 갈등론적 논의를 더욱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이론적 가능성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 II. 청소년 비행에 대한 사회계층론적 접근

여기에서 사회계층론적 접근이란 청소년 비행을 개인적인 차원보다는 집단적인 차원에서 사회계층과 관련하여 설명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우선 청소년 비행은 사회계층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를 살펴본 다음, 그러한 관련성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론들을 탐색해 보려고 한다.

### 1. 청소년 비행과 사회계층적 배경

일반적으로 청소년 비행은 사회계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중산층이상의 청소년들의 비행과 범죄율이 증가하여 과거보다 계층간의 비행율의 차이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중산층보다는 노동자계층 청소년의 비행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 참고로 범죄로 인하여 소년원이나 소년감별소에 보호된 비행청소년들의 보호자 학력을 보면, 1991년에 전국의 1,945명 중 보호자 학력이 무학인 경우가 70명(3.6%), 국민학교 졸업이나 중퇴가 692명(35.6%), 중학교 졸업이나 중퇴가 531명(27.3%), 고등학교 졸업이나 중퇴가 472명(24.3%)인데 비하여 대학교 졸업이나 중퇴가 80명(4.1%)으로 나타난 바 있다(법무부 보호국, 1992: 162~163쪽). 여기에서 중산층에 해당되는 학력을 대체로 대학교 졸업이나 중퇴 또는 일부 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 볼 때, 범죄로 인하여 보호, 감별되는 청소년들은 대부분 중산층이하의 가정배경 출신인 것을 알 수 있다. 법무부 보호국의 같은 통계자료인 비행소년통계

1986년도 통계를 보면, 가정의 생활수준을 대강 상, 중, 하로 나누어 볼 때 소년범죄자 2,280명(남자)중 가정의 생활수준이 상에 해당되는 청소년이 27명(1.2%), 중이 558명(24.5%), 하가 1,695명(74.3%)이고, 여자는 전체 70명중 상에 해당되는 청소년이 없고 중이 17명(24.3%), 하가 53명(75.7%)으로 나타났다(법무부 보호국, 1987). 물론 여기에 나타난 청소년 범죄자는 전체 청소년 범죄자 중 일부일 것이고 또한 보호, 감별되는 과정에서 중산층 이상의 배경을 가진 청소년은 그 이하의 계층과 비교하여 더 많이 제외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것이고 보면, 그러한 통계를 액면 그대로 보기는 어려울 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제시한 사회계층별 소년범죄율의 차이의 대체적인 경향은 실제와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본다.

한편, 앞에 제시한 청소년범죄는 전체 청소년 비행중에서 그 정도가 심한 것에 한정된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 전체 청소년 비행에 있어서 사회계층별 차이는 어떠한가? 청소년 백서(1989)에 나타난 통계에는 1988년 비행 청소년의 87.1%가 생활정도로 보아 하류층이고 이러한 경향은 그 이전 5년간 별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설문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청소년 비행율은 가족의 수입과 부모의 직업에 따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준호 외, 1990). 사회계층별 청소년 비행율에 있어서 앞의 두 통계치간에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이유는 정확하지 않으나 그 중 일부는 두 통계간에 조사대상과 비행의 개념규정이나 측정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청소년 백서의 통계 집계 대상은 연령이 12~20세인 모든 청소년인데 비하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 대상은 고등학교 학생 2,365명과 500명의 대

입 재수생이었다. 그리고 비행의 규정은 전자는 비행 단속에 적발되거나 범죄로 인하여 구속된 것에 한정된 비행인데 비하여 후자는 설문지에 응답한 비행으로서 전자보다 경미한 비행 종류를 포함한 더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비행 청소년의 주종을 이루는 비진학청소년이나 근로청소년이 전자에는 포함되었는데 비해 후자에서는 제외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후자는 전자보다 비행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사회계층간의 격차가 그만큼 적어진 것이 아닌가 풀이된다.

두 연구의 차이를 가져온 또 한가지의 원인은 사회계층에 대한 개념 규정과 측정방법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다. 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에서는 사회계층을 가족의 수입과 부의 직업으로 측정하였는데 통계치의 해석상 문제가 있지 않았나 판단된다. 즉, 가족의 수입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측정할 다음 수입 단계별로 비행빈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았는데, 수입의 단계를 70~100만원을 기준으로 상하로 나누어 중산층 이상과 이하로 보았을 때는 중산층 이하에서 비행빈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부의 직업도 마찬가지로의 방식으로 재분류해 보면 전문직, 관리직, 사무직이 판매직, 숙련직, 반숙련직, 단순노동, 무직에 비하여 청소년의 비행빈도가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학생 비행에 대한 또 다른 조사연구에 의하면, 12~20세 사이의 비행 학생중 부의 학력이 대졸이상(중퇴포함)이 22.2%이고 나머지는 그 이하의 학력이었고 모의 학력의 경우는 대졸이상(중퇴포함)이 6.3%이고 나머지는 그 이하의 학력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영모, 1985). 이러한 통계를 바탕으로 여기서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 비행율을 사회계층별로 볼 때 사회계층이 낮을수록 비행율이 더 높은 경향이 뚜렷하다는 점이다.

## 2. 청소년 비행에 대한 사회계층론적 접근

사회계층과 청소년 비행간의 관계는 크게 보아 두가지 측면에서 고찰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청소년 비행의 원인을 그가 속한 계층적 배경에 두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청소년 비행의 원인을 자본주의사회의 계층구조 자체의 속성에 두는 경우이다. 물론 이 두가지 측면은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왜냐하면 들은 뜻하는 바가 유사하여 중첩되거나 상호관련되는 면이 많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구분을 시도하여 보는 것은 문제 접근에 있어서의 편리함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청소년이 비행에 빠지는 원인을 그가 어느 사회계층 출신이기 때문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의 사회계층에 관계없이 청소년의 비행을 자본주의사회 또는 산업사회의 계층구조나 이데올로기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경우가 있다. 청소년의 비행을 사회계층과 관련지어 종합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두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보는 것이 편리할 것 같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주로 전자의 측면, 즉 청소년의 비행문제를 그가 속하는 사회계층적 배경과 관련하여 논의해보는 데 한정하려고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행과 일탈을 저지르는 청소년은 대체로 사회계층이 낮은 경우가 높은 경우보다 더 많은 경향이 있다. 최근들어 중산층의 청소년 비행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러한 사회계층별 비행율의 차이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는 보고도 있다. 그렇지만 그 차이는 여전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현상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어떻게 설명되어질 수 있는가? 한편, 청소년의 비행율에 있어서 사회계층간 차이가 줄어드는 현상이나, 또는 중산층

청소년 비행율의 증가는 비행율이 사회계층과는 관련이 별로 없어진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그리고, 중산층 청소년의 비행은 노동자계층 청소년의 그것과 같은 것인가? 여기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해 보고자 한다.

중산층이나 상류층보다는 노동자계층에 비행이나 일탈행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더 많은 이유를 설명함에 있어서는 소위 사회학의 기능론과 갈등론적 설명이 모두 가능하리라고 본다.

(1) 청소년 비행에 대한 사회계층론으로서 구조기능론

우선 구조기능론에서는 비행이나 일탈행위라는 것은 개인이 사회의 규범이나 가치관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회적으로 가치있거나 바람직한 태도나 지식을 갖추고 있지 못할 때 생기는 것으로 본다. 즉, 이러한 관점은 비행의 원인을 사회구조나 제도 자체에서 찾기 보다는 사회의 질서나 통제에 적응하지 못하는 개인의 부적응이나 결핍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노동자계층의 청소년들은 중산층보다 개인적 부적응이나 문화적 결핍을 더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비행이나 일탈행동에 더 많이 빠지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기능론에서는 비행이나 일탈행동의 책임을 사회구조보다는 개인이나 가정환경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

한편 구조기능주의 시각을 전지하면서 이와는 약간 다른 이론을 제시하는 경우로서 우리는 사회학자 머튼(R. K. Merton)의 비행에 관한 아노미 Anomy이론을 들 수 있다. 이 이론에 의하면, 비행이나 일탈이 발생하는 원인은 사회의 문화적 목표와 그의 달성에 필요한 제도적 수단간의 괴리에 있다는 것이다. 즉, 사회에는 구성원 모두에

게 가치로운 공동 목표가 설정되어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이 주어져 있을 때, 만약에 그 수단이 목표달성의 정당한 규범으로서 작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 목표와 수단간에 괴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회에는 무규범상태인 아노미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목표의 변화에 수단이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에 많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사회에서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정신적 가치의 중시가 현대사회에 와서 물질적 가치의 중시로 그 목표가 변화되어가는 상황에서 그에 적합한 수단으로서의 규범이 미처 자리잡지 못하고 혼란에 빠져있을 때 소위 아노미현상으로서 비행이나 일탈행위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론은 비행의 원인을 개인의 부적응에서 찾기 보다는 비행을 사회 자체의 기능적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본다는 점에서 앞에서의 기능론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이론에 따르면 청소년의 비행이나 일탈행위는 개인의 특성이나 배경에 관계없이 특정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기 때문에 사회계층에 따른 청소년의 비행율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에는 부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구조기능론적인 접근은 대체로 청소년 비행과 사회계층간의 관계를 소홀히 다루고 있고 청소년의 비행을 일반적인 사회현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비행을 자본주의사회의 계층구조와 관련지어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

(2) 청소년 비행에 대한 사회계층론으로서 갈등론

이상에서 우리는 청소년의 비행과 일탈에 관한 기능론적 접근을 개관하면서 그것이 갖고 있는

제한점을 살펴 보았다. 그러면 갈등론적 접근은 과연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할 수 있는가? 아니면 갈등론은 사회계층에 따른 비행율의 차이 현상에 대해 기능론보다 적합하고 설득력있는 설명을 제공할 수 있는가? 다음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갈등론적 접근을 주로 신마르크시즘에 터한 교육의 재생산론자들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 1) 사회재생산론

우선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육이 담당하는 기능으로서 사회 불평등구조의 재생산을 지적한 신마르크스주의자 보울스와 긴티스(Bowles & Gintis, 1976)의 경제 재생산이론에 비추어 본 청소년 비행론을 논의해 본다. 물론 이들이 재생산이론을 통하여 학생들의 비행 문제를 직접 다루지는 않았지만 여기에서 그 이론을 확대 해석하여 적용해 볼 수는 있다고 본다. 보울스와 긴티스의 경제 재생산론에 의하면, 자본주의사회에서 학교는 사회의 불평등구조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재생산할 뿐인데 그것은 대응원리 *correspondence Principle*에 의하여 일어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대응원리란 사회의 사회적 관계는 학교내의 사회적 관계와 일대일로 대응하고 있고, 동시에 사회의 사회적 관계를 결정짓는 경제적 생산관계가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사회구조의 토대 또는 사회변동의 원동력으로 작용하는데 학교교육도 이에 대하여 수동적으로 일방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학교는 사회의 불평등한 사회적 관계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재생산하기만 할 뿐이라는 설명이다. 이러한 대응원리에 의해서 나타나는 학교내의 하나의 현상으로서 보울스와 긴티스가 제시하는 것은 사회계층에 따른 잠재적 교육과정의 차이이다. 즉, 중산층 배경의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잠재적 교육과정으로는 자율성, 창의성, 지도성, 독립성 등인데 비하여 노동자계층의 학생들에게는 의존성(종속성), 질서 준수, 복종심 등이 은연중에 학교교육을 통하여 가르쳐진다. 이것은 마치 전자는 사회에서 중산층이나 자본가계급이 갖고 있는 태도나 가치관과 흡사하며 후자는 대체로 공장의 노동자들에게 기대되거나 요구되는 태도나 가치관과 유사하다고 보아 보울스와 긴티스는 이것이 바로 사회의 위계적 사회적 관계와 학교의 위계적 사회적 관계가 서로 일대일로 대응하는 현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들에게는 사회계층배경에 따른 학생들의 태도나 가치관 학습의 차이를 자신들의 재생산이론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보고 있지는 않고 다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학교교육이 담당하는 사회구조의 재생산기능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예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러한 불평등 현상이 우리 학교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여기에서 보울스와 긴티스의 사회 재생산이론을 거론하는 이유는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 소개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이러한 이론이 우리사회의 학교교육을 설명할 수 있는 설득력이 있는 이론이라면 청소년의 비행이나 일탈행위는 이 이론에 비추어 볼 때 어떻게 설명되어 질 수 있는가라는 데 있다. 물론 이 이론에서는 청소년의 비행 문제를 직접 다루지는 않고 있으나 그것에 확대 적용하여 설명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두가지 상반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첫째는, 학교 청소년에 있어서 비행과 일탈행위에 빠지는 청소년의 수가 그렇지 않은 정상적인 청소년에 비해서 일부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 이론에 따르면 학생들에게 가르쳐지는 태도들이 특히 노동자계층의 학생들에게는 학교

에서의 권위와 질서에 복종하고 의존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노동자계층의 학생들의 비행율이 적게 된다는 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본다.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론은 노동자계층의 학생들의 비행율이 실제로 중산층 학생들의 그것보다 높은 이유를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 이론에서는 인간을 환경이나 사회구조의 영향력에 순응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보는 가정에 입각해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노동자계층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지도성, 창의력, 자율성 등이 강조되어 사회화되고 있는 중산층 학생들보다 비행이나 일탈행위율에 있어서 더 적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와 반대의 현상을 보이는 데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이 보울스와 긴티스의 경제 재 생산론은 개인이 사회구조의 결정력에 수동적이며 마찬가지로 교육은 사회의 경제구조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된다는 구조주의적 맑시즘의 기본원리는 자본주의 사회의 전체적인 경향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설득력이 있을지 몰라도 여기에서와 같이 사회계층에 따른 청소년들의 비행율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적합하지 않다.

## 2) 저항이론

이러한 문제점은 그 이후의 같은 갈등론 진영 내에서 비판되면서 그것을 극복하는 이론들로 발전된 바 있다. 노동자계층의 청소년들이 중산층 청소년들보다 사회질서에 저항하고 비행을 저지르는 경향이 더 크다는 현상을 이러한 이론들은 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이 이론들이 그러한 현상의 원인으로서는 제시하는 것으로는 첫째, 문제 청소년들은 사회구조의 결정력에 순응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만약에 자신에게 미치는 외부의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

되면 그것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노동자계층의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사회계층적 위치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으며 자본주의 사회구조가 자신들의 장래를 그리 밝지 못한 것으로 예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부모의 계층적 지위를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간파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상태에서 노동자계층의 문제 청소년들은 자신들에게 그러한 구속력으로 주어지는 일체의 권위나 질서를 거부하고 저항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계층의 청소년들이 중산층보다 저항행위를 포함한 비행이나 일탈행위에 더 많이 가담하게 된다는 식의 설명이다.

이러한 소위 저항이론은 앞의 사회재생산이론과 비교하여 몇가지 차이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인간은 사회구조의 구속력에 일방적으로 순응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서는 사회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점이다. 둘째는, 학교교육과 사회의 경제구조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경제구조가 학교교육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부구조에 속하는 학교교육은 자본주의 사회의 토대이자 원동력인 경제구조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상대적 자율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학교는, 사회재생산론자에 의하면,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재생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동자계층의 학생들에게는 학교의 권위나 질서에 의존하고 복종하도록 구속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비행이나 일탈 학생이 있어서는 안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저항행동이 나타나고 또 그 저항이 사회의 경제구속력에 대한 저항이라는 점은 바로 이러한 학교의 상대적 자율성을 나타내 주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셋째는 노동자계층 학생들의 저항이나 일탈행위를 그들이

만들어 낸 문화적 삶으로 보는 점이다.

보울스와 긴티스의 학교교육에 관한 사회재생산론에 대한 비판적인 대안으로 그 이후에 등장한 학교와 사회의 관계에 관한 여러 갈등론 특히 소위 저항이론이나 상대적 자율성 이론으로 불리는 이론들이 노동자계층의 청소년 비행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사회재생산론보다 더 설득력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도 사회계층에 관계없이 나타나는 청소년들의 일반적인 비행이나 일탈행위를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가지 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러한 한계중에 우선 먼저 대두되는 문제는 청소년의 비행이나 일탈행위는 노동자계층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중산층이나 상류층에 있어서도 나타나는 현상이고 또 최근에는 그 비행율이 점점 더 높아지는 추세에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앞에서 언급한 후기 재생산론 특히 저항이론에 의해서 어떻게 설명되어 질 수 있는가라는 점이다. 이제까지 갈등론의 시각에서 청소년의 비행을 다룬 대부분의 이론이나 연구에서는 주로 그 대상을 노동자계층이나 소수민족(흑인, 히스패닉계)에 국한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중산층 이상의 백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 그것은 그 집단의 청소년들에게는 비행이나 일탈행동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보다는 연구자들의 이데올로기적인 관심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나 보여진다. 어쨌든 이러한 갈등론적 연구에서는 중산층이상의 청소년들이 왜 비행이나 일탈행동에 빠지게 되는 지에 대하여 뚜렷한 논의나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그러한 연구들에서 단편적이거나 부분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설명이나 논의들을 정리하여 여기에 제시함으로써 그것들의 이론적인 시사점을 평가해 보는 것이 의의가

있다고 본다.

### 3) 모순이론

우선 먼저 고려해 볼 만한 것은 후기 재생산론자 또는 신마르크스주의자들이 중요시하는 모순 *contradiction*이란 개념이다. 모순은 여러가지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사회의 경제구조의 재생산력 *reproduction forces*이나 결정력 *determination*에 대하여 대립적인 경향이나 정반대의 힘이 작용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재생산 기제속의 모순을 중요시하는 입장은 앞에서 설명한 보울스와 긴티스의 경제재생산론과 같은 기계적이고 지나친 귀납적인 결정론 *reductive determination*에 비판적이고 회의적이다. 이러한 입장의 대표적인 경우가 폴 윌리스 *Paul Willis*의 노동자계층 학생들의 반학교문화에 관한 연구가 아닌가 한다. 즉, 이 연구에서는 문화기술지적 연구방법(*Ethnographic Method*)을 사용하여 영국의 어느 한 중등학교의 노동자계층 출신의 문제 소년들 소집단(12명)을 집중적으로 관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 내었다. 자칭 '사나이들 *lads*'이라고 불리는 이 문제소년들은 자본주의 사회구조가 그들에게 은연중에 미리 결정해 놓은 길인 공장 질서에 순응하는 수동적인 노동자가 되는 과정을 거부하고 스스로 능동적, 의식적으로 노동자가 되는 길을 택한다는 것인데, 그러한 과정에서 그들은 사회구조의 구속력의 대항자격인 학교가 그들에게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권위와 공부를 거부하는 소위 문제행동을 표출한다는 것을 이 연구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 결정론적 구속력에 대항하여 그것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장면을 우리는 모순적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모순은 좀더 폭넓게 생각한다면 사실 여러가지 경우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윌리스 연구의 경우에 계층의식에 의한 그러한 저항행위가 남녀간의 관계에서 보면 남성 우위사상 *patriarchy*로 인하여 남녀간에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 노동자계층내에 존재하는 모순적인 상황으로도 볼 수 있다(Apple, 1982).

여기에서는 또 하나의 모순적인 상황의 경우로서 중산층 청소년의 비행이나 일탈을 설명하려고 한다. 저항이론류의 관점에 따르면 중산층 청소년들의 저항행위로서의 비행은 이론적으로 무시할 정도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은 그러한 대세적인 결정력에 대하여 무엇인가 모순적인 힘으로 작용하는 것이 있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를 관념적인 수준에서 표현하는 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수준으로 나타내 보는 것이 논의의 설득력을 검증받는 데 더 나을 것 같다. 여기서 논의하고자 하는 문제는 구체적으로 중산층 이상의 청소년들이 자본주의 사회구조내에서의 삶의 기회에 있어서 대체로 유리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구태여 비행이나 일탈행동을 저지르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맑시즘의 모순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에 있다. 아래에 몇가지의 가능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해 본다.

첫째로는 중산층이상의 사회계층에 속한 가정일지라도 가족구성원간에 계층소속에 대한 동일시가 일치하지 않거나 불안정하여 계층의식에 있어서 갈등을 일으킬 경우 자녀인 청소년이 저항이나 비행을 나타낼 수 있다는 가설을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부모가 자기세대내에서 노동자계층에서 중산층으로 계층상승이동을 한 경우에 부모는 경제적으로는 풍족해졌지만 사회적

지위나 문화적 수준등에서 아직 구태를 벗지 못한 상태라면 자녀는 그러한 가정내에서 부모와의 계층적 관계에서 갈등을 느낄 수도 있고 계층의식이나 정체성에 있어서 혼란을 경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노동자계층의 청소년과 같은 비행 성향을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식의 관찰과 설명을 보여주는 한 예를 코넬의 연구에서 찾아 볼 수 있다(Connell et al, 1982).

둘째로 중산층 이상의 청소년들이 비행을 하게 되는 이유로서 계층적 배경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는 그들은 현재 자신이 사회적으로 출세하거나 성공하는 데 결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비행이나 일탈행위를 하고 있지마는 노동자계층의 아이들과는 다르게 자신들의 유리한 배경으로 인하여 결국은 현재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는 것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비행이나 일탈행동을 일종의 자신의 보장된 탄탄대로를 과시나 하는 듯이 표출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은 노동자계층의 청소년들이 자신에게 미리 결정된 길을 수동적으로 따르지 않고 저항하는 행동으로서 비행을 저지른다고 보듯이 중산층 청소년들도 자신들에게 사회구조적으로 부여되는 태도나 행동을 거부하는 형태로 비행이나 일탈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즉 이러한 사회계층의식을 바탕으로 일어나는 비행이나 일탈행동은 사회구조적 구속력에 저항하는 모순적 기제에서 나타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는 중산층의 문제 청소년중 일부는 자본주의 사회구조의 모순성과 계층간의 불평등성을 의식하고 비판하면서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가치관이나 철학에 입각해서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노동자계층의 친구들과 동일시함으로써 그들의 저항행위에 동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기성세대에

있어서도 중산층에 속하면서도 자신의 계층적 위치에 관계없이 이념적으로 노동자계층과 연대하여 진보적 의식이나 개혁적 실천을 같이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볼 때 청소년 집단의 비행문제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설명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문제는 청소년들의 사회의식이나 이데올로기적 가치관이 과연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그러한 설명의 설득력이 좌우된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학교공부에 얽매어 살고 있고 학교교육에서도 이제까지 입시위주의 암기식, 일제식, 주입식 교육을 획일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그러한 사회의식이나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시간적 여유나 기회가 거의 없었다고 볼 때,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나라에 비교해서 우리에게서 그와 같은 설명이 적용되기가 어렵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비행을 하는 문제 청소년들이 전체의 일부분에 해당되고 특히 그들의 사회비판의식이 다른 학생들과 비교해서 높다고 볼 때는 그러한 설명도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일고의 가치는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중산층 청소년에게도 노동자계층과 마찬가지로 비행이나 일탈행동이 일어나고 있고 또 그 경향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한 또 한가지의 모순론적 설명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중산층 청소년들이 노동자 계층 청소년들의 비행이나 일탈행동을 포함한 일상적 삶의 문화를 천시하거나 배척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 동조하여 그들의 비행이나 일탈행동을 좋아하거나 모방하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예를 들면, 최근에 중산층 특히 백인 청소년들이 노동자계층 특히 흑인 비행 청소년들의 일탈적 언동이나 취향을 모방하는 경향이 유행처럼 번지기도 한 바 있다. 세계적인 팝가수 마이클 잭

슨의 유행가 제목인 “배-드 BAD”의 영향을 받아 인지 미국 청소년들 특히 비행성향이 있는 청소년들은 그들간의 일상적인 대화시 “배-드.”라는 말을 유행처럼 쓴 적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도덕적이나 질적으로 비난받을만한 언동에 대한 평가적인 발언이라고 보다는 오히려 그들중에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고 모범적인 언동을 보였다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끄는 언동을 하였을 때 그것을 비꼬거나 풍자적으로 사회 통념이나 질서에 대한 저항을 표현하고 싶은 경우에 많이 사용되는 일종의 은어라고 볼 수 있다. 그밖에도 흑인 비행 청소년들이 그들 특유의 몸짓으로 건들거리면서 다른 친구들을 좀 무례하지만 사나이답게 또는 불량성있게 부를 때 쓰는 “헤이, 매-앤(Hey, Man)”과 같은 표현이라든지, 한동안 미국에서 유행했던 일본류 만화영화인 “닌자 거북이(Ninja Turtle)”에서 자주 나오는 “래디컬! (Radical!)(기차네!)”이라고 외쳐대는 소리를 청소년들이(만든지 불량 청소년 집단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흉내내어, 급진적이라는 본래의 뜻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생각이 기발하다던가 모습이 매우 멋있다고 느낄 때 주로 사용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러한 현상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필자의 관찰 부족으로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예시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대체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노동자계층 또는 흑인 비행 청소년들이 사회 기성세대의 질서에 저항하는 의미로 사용하기 시작하다가 다른 중산층 비행 청소년들이나 다른 일반 청소년들에게 전파, 확산되어 유행처럼 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위에서 예로 든 것들은 대체로 비행 청소년들의 문화의 한 부분이고 그러한 비행 청소년들의 문화가 노동자 계층의 청소년 집단이 주축이

되어 형성되고 만들어 진다고 볼 때 그것의 전파 방향이 수적으로 적고 태도에 있어서 덜 적극적인 중산층 비행 청소년 집단이나 일반 청소년 집단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판단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 문화의 종류에 따라서 전파 방향이 반대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자면, 서울 강남의 압구정동에서 탄생되어 유행하는 소위 '오렌지족 문화'는 중산층이상의 청소년 집단에서 발생하여 점차 중산층이하의 청소년 집단으로 그 유행이 전파되지 않을까 여겨진다. 물론 그러한 문화를 소유하거나 그것에 참여하는 데에는 높은 경제적 소비가 요구되기 때문에 가난한 계층의 청소년들에게 전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계층의 청소년들이 그러한 고급소비문화를 즐기기 위하여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다. 이를테면, 유흥과 향락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저지르는 범죄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론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과연 사회계층간에 서로 다른 청소년 하위문화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 하위문화들이 서로 접하여 소위 '문화접변(aculturation)'이란 것을 과연 일으키며 그 접변은 어느 방향으로 일어나는 가이다. 만약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앞에서 거론한 사회재생산이나 저항이론에서 설명하기가 어려우나 신마르크시즘의 모순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경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청소년 집단은 사회계층적 배경에 따라 나름대로의 하위문화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은 소위 하위문화이론에 의해서 제기된 것이고 그 이후 적지 않은 관찰과 실증적인 연구를 통하여 확인된 바 있다. 그리고 사회계층별 하위문화가 서로의 구성원들에게 사회적 학습을 통하

여 전파된다는 것은 문화전파이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이러한 하위문화이론이나 문화전파이론은 계층에 따른 청소년 하위문화간의 관계를 직접 다루기보다는 일반적인 문화과정에 관한 적합한 이론이라고 볼 때 이것을 신마르크시즘의 모순개념으로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적합성과 의의를 더해준다고 하겠다.

### III. 요약 및 결론

이상에서 논의한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비행이나 일탈행위를 사회계층과 관련하여 설명하는 접근이 이제까지 소홀히 취급되어 왔는데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근은 구조기능주의나 갈등론 모두에서 가능하다. 청소년의 비행이 사회계층이 낮아질수록 더 많아진다는 경향은 구조기능주의에서는 그 원인을 낮은 계층의 청소년들의 부족한 문화적 지식이나 태도로 인한 사회적응에의 실패율이 높은 계층의 청소년보다 높다는 점에 두고 있는 반면에, 갈등론에서는 그 원인을 사회의 불평등한 계층구조에 바탕을 둔 지배계층의 경제적, 문화적 주도권으로 인한 노동자계층 청소년의 차별적 사회화 또는 삶의 기회에서의 성취부진이 결과한 좌절, 소외감, 욕구불만 등에 두고 있다. 그런데 신마르크시즘의 경제결정론적인 사회재생산론은 노동자계층의 청소년들이 중산층이상의 청소년들보다 학교에서의 비행이나 일탈행위에 더 많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회현상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한계를 노출시키고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 이론의 대응 원리에 따르면 학교에서 노동자계층의 학생들에게는 질서와 권위에 대한 복종심, 의존심, 타율성 등이 중산층의 학생들보다 더 강조되어 가르쳐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계층의 학생들의 비행율이

더 낮아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보완해주는 갈등론내의 이론으로서 소위 저항이론은 노동자계층의 문제학생들의 반학교문화를 통하여 그들이 질서와 권위에 수동적으로 복종하기 보다는 능동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비행과 일탈행위가 발생한다는 점을 설명해주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문제는 최근에 중산층이상의 청소년들의 비행, 일탈행위, 범죄가 증가하여 비행과 사회계층간의 관계가 없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라는 점이다. 구조기능론은 그것을 산업사회의 진전에 따른 가치관의 혼란으로 인한 아노미 상태가 심각해지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청소년의 비행과 일탈행위가 증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것이다. 한편 갈등론에서는 그러한 현상에 대한 설명을 아마도 두 가지 측면에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자본주의 사회가 갖고 있는 지나친 상업주의와 물질주의가 가져오는 병폐 현상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다. 다른 하나는, 이 글의 핵심적인 주장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근래에 중산층이상의 청소년들의 비행이 노동자계층에 비하여 더 큰 증가율을 보이는 현상은 종래의 갈등론, 즉 사회재생산론이나 저항이론에 의해서는 설명이 곤란하게 되는데 그것을 모순이라는 신마르크시즘의 개념으로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는가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모순을 '중산층보다는 노동자계층의 청소년 집단에게 비행이 더 많이

나타나게 하는 자본주의 사회구조의 경제결정론적 구속력에 대항하여 작용하는 계층관계'로 정의할 때, 이 글에서는 이러한 모순적 상황으로 인하여 앞에서 제기한 사회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을 네 가지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려고 하였다. 즉, 중산층이상의 청소년들에게 비행과 일탈행위가 증가하는 원인으로서는 첫째, 가족 성원간에 존재할 수 있는 계층의식의 불일치나 불안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삶의 기회에 있어서 유리한 계층적 배경으로 인하여 앞날이 보장된 중산층이상의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비합리적이고 사치적인 비행일 수도 있다. 셋째, 자신의 가치관이나 철학에 따른 사회적 의식이나 태도로 인하여 노동자계층의 청소년들과 동조하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비행이나 일탈행위일 수도 있다. 넷째, 중산층 이상의 청소년들이 노동자계층의 비행문화에 매력을 느껴 영향을 받은 결과로 나타나는 비행일 수도 있다.

이러한 모순 개념에 입각한 중산층이상 청소년들의 비행 현상에 대한 이론적 설명은 비행을 하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기존의 사회학습이론이나 문화전파이론과 별 차이가 없지만 그 비행의 근원을 사회계층과 관련지어 찾아본다는 점에서 구별된다고 볼 수 있고 또 그 의의가 있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이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시론에 불과할지도 모르겠다. 앞으로 이와 같은 청소년 집단의 비행이나 일탈행위에 대한 사회계층론적인 접근이 더욱 진지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김영모, 원석조, 최현숙(1985), 한국청소년연구.  
한국복지정책연구소.

김준호, 노성호, 고경임, 최원기(1990), 청소년 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 -공부압력을 중심

- 으로 一. 청소년범죄연구 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법무부 보호국(1987), 비행소년통계 1987(1982~1986).
- 법무부 보호국(1992), 비행소년통계 1992(1987~1991). 제 11집, 법무자료 제159집.
- 전경갑, 최상근, 백은순(1987), 학생 비행의 제 이론 비교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87~43.
- 한준상(1989), 청소년 문제와 학교교육. 연세대학교출판부.
- Apple, M. (ed.)(1982), *Cultural and Economic Reproduction in Education*. Boston : Routledge & Kegan Paul.
- Bowles, S. and H. Gintis(1976), *Schooling in Capitalist America*. New York : Basic Books Inc.
- Coleman, J.(1961), *The Adolescent Society*. New York : The Free Press.
- Connell, R., D. Ashenden, S. Kessler, & G. Dowsett(1982), *Making the Difference : Schools, Families and Social Division*. Boston : George Allen & Unwin.
- Cusick, P.(1972), *Inside High School*. New York : Holt, Rinehart, & Winston.
- Everhart R. B.(1983), *Reading, Writing, and Resistance : Adolescence and Labor in a Junior High School*. London : Routledge & Kegan Paul.
- Willis, P(1977), *Learning to Labor : How Working Class Kids Get Working Class Jobs*.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